

완도군,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선정

올해 462명 대상 11개 항목 검진...10월 말까지 시행

지정 의료기관 '대성병원'서 10월까지 건강검진 받아야

완도군이 지난 5월 29일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여성 어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본 사업은 여성 어업인의 맨손 어업, 쪼그려 앉은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등 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상 전국의 여성 어업인 1,800명으로 완도군은 거주 여성 어업인은 462명이 포함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20만 원(국비 90% 지원)이다.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인 대성병원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 위험, 심혈관계 질환, 난청 등 총 4개 영역 11개 항목이며, 질병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 상담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국가 검진에는 없는 여성 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이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검진과 예방 및 치료 등 여성어업인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해양수산부 방침으로 여성 어업인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특화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할

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다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진도군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올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만큼 상습·고질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신속한 체납처분과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징수팀 061-540-3321~3.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와 징수 불가능 분 정리보류·사후관리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읍면에서는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현장 납부 독려 등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고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장흥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교육생 모집

8월 9일까지...모집인원 15명 내외 만 18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

장흥군이 오는 8월 9일까지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한다.

군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교육을 통해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주체를

육성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장흥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기양리·예양리) 거주민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장흥군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과정으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초이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지역 선진지 견학, 조합원 내부 역량강화, 트렌드와 고객 수요 분석, 회계의 중요성 및 기본 개념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23년 8월 16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장흥군 도시재생지

원센터에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서는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860-6145) 또는 장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862-9410)로 문의 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읍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재생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장마 끝' 집중방역

소독으로 주민 건강관리 총력

해남군이 장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주민 건강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발빠르게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읍면별 기동방역반을 편성해 모기, 날파리 등 해충의 개체수 급증을 대비해 하천, 풀숲, 웅덩이, 공동 등 해충 서식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범람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28일까지 추가 집중방역으로 대대적인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은 군 보건소와 읍면의 방역차량 운행과 함께 휴대용 연막방역기를 활용해 하수구와 웅덩이 등에 대한 세심한 방역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군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대비한 상시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군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침수지역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장화와 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재광강진군향우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모처에서 재광강진군향우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차용훈 전 조선대학교 공대 학장, 임희진 전 종합건설본부장, 김흥연 강

강진군 발전 위한 광주 향우들, 새로 뭉친다

'재광강진군향우회' 창립 가시화...준비위 열고 일사천리 추진

향회골프 회장, 김정동 전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병준 공학박사, 조형곤 재광강진군향우회 예비 사무총장, 장인균 무등일보 부회장, 김경만 국회의원, 김광란 전 시의원, 공성남 예비 사무국장, 최후식 법학박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예향금지, 친목도모, 사회봉사'라는 준비위원단의 슬로건 아래, 조형곤 예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차용훈 전 조선대학교 공대 학장이 만장일치로 준비위원장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차용훈 의장은 "타향인 광주에서 마음의 위안을 준 강진군에 이제 우리 강진 향우들이 모여 무언가 해야 할 때가 되

었다고 생각한다"며 "강진향우회 변명을 위해 준비위원단과 함께 광주에서 우뚝 선 '재광강진군향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했다.

준비위원으로 참석한 김경만 국회의원은 "광주에서 강진군향우회가 신뢰와 비전을 갖춘 조직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 강진이 가진 예향의 문화를 전파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 향우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자"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재광강진군향우회 창립을 가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강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